

테마칼럼

문학과 사회

문화3337

이달의 명작

이달의 명작

짐이 되지 않는 선물



최영미

취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크고 비싼 물건보다는 가볍고 부담이 없는 선물이 좋다.

후배 Y가 배달시킨 화분을 결국 나는 처분했다. 독신생활을 시작한 이래 우리집 현관문으로 들어온 가장 덩치 큰 선물일텐데, 작은 거실에 어울리지 않게 큰데다 촌스러운 황아리 조각이 내 맘에 들지 않았다.

선물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자꾸 보다보면 혹시 짐이 들지도 모른다는 친구의 충고는 내게 통하지 않았다. 교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구입했으니 원치 않으면 다른 화분으로 바꾸라고 Y는 호언장담했지만, 꽃집 주인의 말은 달랐다.

드나들며 잠깐은 거리적거리했지만, 애물단지 가 사라진 집안에서 안도의 숨을 쉬며 나는 기다렸다. 하루에도 서너번 전화해 애원한 끝에 드디어 어느 날 문밖이 깨끗이 치워졌을 때의 시원함이란! 꽃집 주인과의 협상 끝에 되바꾼 두 개의 작은 화분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며 불안이 해소되었고, 나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았다.

나도 것처럼 헛돈을 쓰며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선물을 안긴 적이 있다. 작년 성탄절 밤, 내가 멀리서 흠모하던 선생님의 아파트를 처음 방

문하며 내가 드린 장미꽃다발과 와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떨떠름한 선생의 표정을 보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에야 알았지만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주로 서울의 자택에 기거하며 일주일에 한번 들를까 말까한 소도시의 연구실에서 금방 시들 장미가 누구의 눈을 즐겁게 하리오. 꽃집들을 전전하며 내겐에는 큰 맘 먹고 산 꽃이 곧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림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나저나 어린이날에 내 사랑하는 통감까지 조각에게 뭘 사다줄까? 어머니의 생신도 바로 뒤에 다했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물건으로 그간의 소홀함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살며 내 마음을 전달할 다른 방법이 딱히 없다.

서울 동생의 집을 일주일에 두어번 드나들 때, 어린 조카를 내 품에 안고 함께 노는 시간이 길던 그리운 시절에 나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보다 내가 먼저 알았다. 이모가 사다준 텃

프 트럭이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조카를 보며 나는 흐트했다.

그런데 어느덧 내 품을 떠나 초등학교에 다니며 생각과 말이 정교하게 성숙해지는 그의 속을 나는 도통 알 수 없게 되었다. 재작년 생일에는 아예 선물을 두 개, 내가 주고 싶은 명화가 새겨진 쿠피백과 그 나이 또래의 사내애들이 좋아할 조립식 로보트 장난감을 따로 준비했다.

적당한 선물을 사고 사람의 말을 몇 줄 적는 게 때로 성가시기도 하지만, 바로 그게 사는 맛이 아니던가. 어제 D시에서의 문학강연 중에 내가 역설했듯이, 나는 작고 사소한 기쁨에 정 붙이고 사는 사람이다. 언제 행복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꽤자들에게'를 완성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희열이 났었고, T와 빛나는 하루를 기억하며 나는 행복했고, 추구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조카와 놀며, 조카에게 선물할 물건을 고르며 (축구공이 좋을지 농구공이 좋을지) 나는 행복했고, 그런 낙이라도 없으면 이 심심한 세상을 어떻게 견뎌갈 것인가.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대회 유치 정부 '의지·지원'에 달렸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후보지 광주에 대한 실사가 본격화됐다. 스웨덴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을 비롯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어제 광주에 도착, 4박 5일간의 실사일정에 들어갔다.

광주시내에 환영 인파로 넘쳐났다. 광주공항과 속소를 비롯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인간 따'를 만들어 실사단원들의 출신국 국기와 대회 유치를 열원하는 팻말 등을 들고 실사단을 맞고 있다.

실사단은 오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5·18국립묘지를 참배한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들이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광주시는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실사단에게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주의 경쟁도시인 러시아의 카잔이다. 카잔은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3번째 도전하고 있다. 광주가 후보지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부담되는 상대가 아닐 수 없다.

관건은 정부의 역할이다. 국제대회 유치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실사단원과 오찬을 갖고 U대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다.

U대회는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제대회 유치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유치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FISU 집행위원국 국가원수에게 서신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유치전에 나서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빛더미' 서민가계 안정대책 서둘러라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부채가 소득 증가 속도를 넘어어서 '빛더미'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상 가장 몰가마져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1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 보고서'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국민·우리·농협 등 6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이 2005년 말 15.3%에서 2006년 말 19.3%에 이어 작년 말에는 20.2%로 높아졌다.

연간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도 2005년 말 10.2%, 2006년 말 12.0%, 작년 말 13.2%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크다. 저소득 가계 DSR은 작년 말 기준으로 22.3%, 고소

등가계는 15.7%로 두 계층 간의 격차가 6.6%포인트에 달했다. 그만큼 서민의 빚 부담이 큰 셈이다.

물가도 서민 가계를 억누르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가 4.1%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4%대로 치솟은 것은 3년8개월 만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는 5.1% 급등했다.

지금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부부담에 상당한 경기부양책이다. 투자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증대 정책이 절실하다.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빛더미에 오른 서민 가계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파탄 수위에 없다. 수습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기 전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파탄 위기에 몰린 서민 가계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희섭, 서재용 등 메이저리거 출신에다 호세 리마, 발라스 등 용병까지 가세해 올해 성적 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즌 초반부터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애초 시범경기 때만하더라도 KIA가 올 시즌 '돌풍'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V10'(한국시리즈 10회 우승)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에 팬들은 설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본 결과 현실은 정반대 되고 말았다. 시즌 초반 한달이 못돼 최하위로 추락한 데다 반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예전 타이거즈가 자랑했던 '근성'마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날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결과를 믿기 어려웠다는 표정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3회 1점을 먼저 얻은 KIA는 6회 5점을 보낸 후 1점을 내줘 6-1로 낙담하게 앞서갔다. 그러나 8회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문현정-임준혁-유동훈으로 이어진 KIA의 계투조는 3안타에 4사구만 무려 5개를 날라하며 6점을 헌납했다. 최종 결과는 6-7 역전패였다.

경기가 끝나자 팬들은 이구동성으로 탄식했다. 과거 해태 시절 역전승의 '주역'에서 역전패 '단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비아냥도 곁들여 졌다. 실제

지난달 30일까지 8승 19패를 기록한 KIA는 여섯 차례 역전패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전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 앞서 가다 덜미를 잡혔다는 분석이다.

KIA의 부진은 '근성 부족'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고도 골할 경기를 뛰었어 승리했던 과거의 전통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탄도 쏟아진다.

극한 상황을 극복해내야 승리의 기회를 맞볼 수 있는 스포츠 세계. 지금 KIA 타이거즈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투철한 '승부정신'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스포츠와 근성



의료 칼럼



허정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민소득도 80달러 최빈국에서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입 무역량도 연 6천억 달러 규모로 발전했다. 문맹률이 80%에 이르던 국민의 교육 수준은 현재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사회적인 환경도 전통적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가족·혈연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화했다.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는 발전해 왔지만 그동안 의료인들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수가 및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다. 앞으로 복지국가건설에 있어서 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는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과 질병대처에 자긍심을 갖고 치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의료와 복지국가

반세기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40세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장수국가로 진입중이고, 곧 초고령사회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인들의 노력이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민의 한 차원 높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싶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의료수가의 10분의 1, 일본 의료수가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대형의료기관이 의학적 연구는 꿈도 꾸지 못하고, 당장 병원운영에 급급해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할 여유가 없다.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새로운 의학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학연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명공학 등 의료산업화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하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 의학도들이 자긍심과 안정된 상황에서 연구하고 국민을 위해 최첨단 의료가술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길 바란다. <광주 예민병원 원장>

공기업 방만경영 또 방치할 것인가

지난 4월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공공기관의 2007년 경영정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임·직원을 늘려 덩치를 키우고 부채가 크게 늘었는데도 흥청망청 돈잔치도 여전했다. 직원들의 연봉이 고액인데도 또 올려주면서 기관장도 덩달아 자기의 고액연봉도 올리고 업무추진비도 증액시켰다.

경영 효율화는 뒷전이고 국민의 혈세로 제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은 물가고에 허리를 졸라 매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방치해 왔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새 정부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고강도 대책과 투단의 조치를 마련, 믿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길 바란다. ▲김동욱·광주시 동구 산수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기고



김정환

영산강, 담양군 용면 용추봉(560m)에서 발원하여 담양·광주·나주·영암 등지를 지나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 황해로 흘러든다. 강의 길이 115.5km, 유역면적 3,371km이다. 영산강은 남서류 하면서 광주전(11.8km)·황룡강(45km)·지석천(34.5km)·고막원천(21.4km)·함평천(15km) 등의 지류와 합류한다. 조석(潮汐)의 영향이 나주 부근까지 미쳐 연안 농경지에 하천 범람·농토 침식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하였으나 1981년 12월에 하구둑이 축조됨으로써 감조구역(感潮區域)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뜨거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영산강갯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때는 지역민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새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서부터 여러 단체에서 '영산강 갯길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벌써 지역발전의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영산강운하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필자는 한반도 대운하의 호남본부장으로서 전남도가 중앙부처에 요청한 영

영산강 갯길은 복원돼야 한다

운 감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한 반도 대운하는 강변에 국제 화물·여객 터미널을 만들고 4대강 주변을 레저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미래를 설계하는 21세기 희망의 프로젝트이며, GNP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 동력으로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좋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 먼저 영산강 갯길 복원부터 시작하여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금년 2월19일 전라남도의 주관으로 영산강 갯길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관련단체대표들과 함께하는 좌담회를 참석할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영산강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도시로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펼치고 나아가 영산강과 조화되는 신도시, 산업화 등을 추진해보자 취지의 의도였다. 많은 고견들과 주장이 나왔다. 가장

산강 프로젝트의 개요를 보면서 왜 영산강운하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이 하상퇴적물과 오염물질로 누렇게 변해버린 것을 전남도청 스키아라운지에서 내려다보며 영산강 살리기의 절실함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필자는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영산강을 살리는데 보태고자 방법을 찾다가 지난 3월26일 뜻있는 학생 80여명과 영산강 주변 주민들이 모여 영산강변 쓰레기를 약 600kg을 수거처리 하였다. 이런 작은 일로 영산강이 맑아질 리는 없겠지만 작은 씨앗을 심어 정성스레 가꾸면 세월이 흘러 큰 나무가 되지 않겠는가?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영산강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방치되고 버려진 영산강이 아닌, 쓸모 있게 가꾸어 후세에 길이 남게될 영산강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산강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지역민의 숙원인 영산강 갯길이 복원되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한반도 대운하 호남본부장>

농촌 도로변 전신주 아광판 의무화하자

최근 농촌에 다녀왔는데 아직도 비좁은 커브길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주가 도로와 맞닿아 세워져 있다 보니 오토바이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밤에 운전할 경우 전신주를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 전신주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인명 및 재

산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 도로변 전신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신주에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아광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했으면 한다. 인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